

‘코넨 도일’의 작품에 녹아든 의학 · 화학교육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코넨 도일(1859~1930)'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새뮤엘 M. 거버는 염료 색소 및 그의 중간체에 대한 화학기술 전문가다. 현재 염료와 관련한 분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염료 관련 분야에서 출판물, 논문, 특허를 갖고 있다. 그의 강연 '화학자 설록 홈즈'는 매우 유명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강연을 요청받고 있다. 그는 미국화학회가 1980년에 기획한 심포지엄 '범죄와 화학'을 주관하였으며, 그 내용을 편집하여 단행본 '화학자 범죄-설록 홈즈에서 오늘의 법정까지'(1983)를 출간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아서 코넨 도일은 영국의 작가이며 설록 홈즈를 만들어낸 작가로 유명하다. 도일은 에든버러대학교를 졸업한 뒤, 1891년까지 의사로 일했다. 소설 '주홍색 연구' (1887)에서 처음 홈즈가 등장하는데, 홈즈에 대해서는 연역법적 추리로 이름난 에든버러의 한 교사로부터 착상을 얻었다. 홈즈가 나오는 단편소설은 1891년부터 잡지 '스트랜드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실리기 시작했으며 그 후 몇 권의 전집으로 출판되었다.



조지프 벨 교수. 도일의 눈에 비친 그의 메부리코와 예리한 눈매는 홈즈의 모델이 되었다.

도일은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가톨릭 신도가 되었으며, 소년 시절을 보냈던 마을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도일이 쓴 것은 거의가 런던이나 그 근교에 얽힌 작품들뿐이다. 그래서 도일은 로맨틱한 애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생애에 걸쳐 줄곧 품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작품 중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엄격한 신교가 지배하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소년 시절의 친구와 동료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바가 없다. 도일은 18세에 가톨릭 신앙을 버린 직후, 그 당시 유명한 에든버러 대학 의학부에 입학이 허락되었다.

의과대학 다니며 광범위한 과학적 지식 얻어

도일에게 있어서 에든버러 시절, 특히 의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시절은 이후의 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대학은 도일의 과학적 호기심과 문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스포츠에 눈을 떴으며, 훗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학과 공부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도일의 화학, 약물, 그리고 실험실에 대한 흥미는 확실히 그가 에든버러를 떠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것들이다. 대학 교수들은 강의시간 이외에 학생과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좀처럼 없었다. 그의 초기 작품 중 '거들레스톤 상사'는 의학부 교수진에 대하여 존경과 무능을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다. 도일이 의학생이던 당시는 학교에서 인정한 특정한 다른 학부의 강의를 전체 수강과목의 반수까지 청강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도일이 2년치를 마쳤을 때, 조지프 벨 교수는 그를 조수로 채용하였다. 도일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교수가 자기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항상 걱정하였지만, 사실 벨 교수는 그를 많은 학생 가운데 하

나인 평범한 학생으로 생각하였으며, 학생들이 말하는 ‘독수리의 눈’으로 도일을 묘사하였다. 후에 벨 교수가 팔 말 가제트의 기자에게 말한 일화가 있다. “도일 군은 시종 노트를 들고 있었으며, 내가 한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록했고, 환자가 진찰실에서 나간 뒤에는 뻔질나게 나에게 진단 결과를 반복하여 물었다. 자신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를 언제나 확인하였다.”

그러나 벨 교수는 세월이 좀 더 지난 후에 같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도일 군은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진단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미세한 점까지도 발견하려고 하는 불굴의 노력이었다. 이전에 어느 환자가 나의 진찰실에 들어 왔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안녕하세요, 패트!” 패트는 패트릭의 약칭으로 아일랜드에 많은 이름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을의 남쪽으로부터 해변을 돌아서 오셨군요.” “예,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까?”라고 패트가 말했다. 옆에서 있던 도일은 대화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실은 간단명료한 일이었다. 비가 온 날이어서 해변으로 흘러내린 붉은 점토가 패트의 장화에 묻은 채,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 에든버러 마을 주위에는 똑같은 점토가 노출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가 진찰실을 나가자마자 도일은 장화와 점토에 대하여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그의 작은 수첩에 빠뜨리지 않고



셜록 홈즈로 분장한 바질 레스본



▲ 홈즈와 왓슨의 만남을 기념하는 동판,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의 오래된 병리학 실험실에 붙어 있다.



▶ 셜록 홈즈의 모험담이 실린 잡지 ‘스트랜드’

적었던 것이다. 도일의 작품 ‘다섯 개의 오렌지 씨’에서 처음 만난 젊은 소송 의뢰인을 향해서 홈즈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남서쪽에서 오셨군요.” “네, 호삼에서 왔어요.” “당신의 구두 앞쪽에 묻은 흙은 점토와 백악질이 섞인 것으로 아주 특이하기 때문이지요.”

의학 학술 잡지에 뛰어난 논문 게재하기도

유명한 작품의 주인공 모델로서 벨 교수를 다룬 한편, 도일은 화학 담당교수였던 크롬 브라운에 대해서도 그 밖의 교수와 똑같이 자서전에 제법 많은 부분을 쓰고 있다. 브라운 교수는 에든버러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학문적으로는 일이 빠진 교수였다. 도일은 자서전에서 비록 실험의 대다수는 실패로 끝났지만 교수의 친절한 태도 때문에 학생들이 실험시간을 즐거워했다고 쓰고 있다. 브라운 교수는 1869~74년 에든버러대학의 교수진 가운데서 여자 의과 대학생의 작은 그룹에 문호를 개방하여 화학을 가르친 교수였다.

도일의 자서전에는 젊은 도일이 의사로서 유명한 의학 학술 잡지에 뛰어난 논문을 몇 편 게재했다는 것과 대학의 강의에서 배운 연구정신을 바탕으로 실제로 응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일의 다른 작품 ‘호일랜드의 의사들’에서도 그가 브라운 교수의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호일랜드의 의사들’은 도일의 자서전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매우 흥미롭다.

코난 도일은 에든버러 대학의 의학부에서 받은 의학 교육과 의사로서의 수련, 그리고 의학 및 화학 교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것은 도일 자신도 인정할 뿐 아니라 그의 자서전과 여러 작품에 많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ST**